# 야구팬들 주목! 5개 구장이 내 손 안에~

#### LG유플러스 'U+프로야구' 앱 써보니…

5개 경기 동시 시청·놓친 장면 돌려보기 기능에 투구 추적 애니메이션 등 실시간 중계 서비스도



"모아보고, 나눠보고, 돌려본다." 프로야구를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요즘은 20·30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스마트폰으로 프로야

구를 즐긴다.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 고 '내 손안의 구장'에 입장해 '조용하지만 뜨거운' 탄 성과 탄식을 내뱉는 야구팬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양한 부가기능을 넣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 등장하면서 야구장에서 '직관'을 하면서도 스마트폰 으로 관련 정보를 얻는 골수팬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 난달 말 출시해 3일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최근 20만 고지까지 점령한 LG유플러스의 'U+프로야 구'도 화제의 프로야구 앱 중 하나다. 퇴근길에 U+프 로야구로 LG트윈스와 SK와이번스 등의 경기를 보면 서 모바일 앱을 통한 프로야구 관전의 또 다른 묘미를

프로야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팬심'이다. 야 구팬이라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 길 원한다. U+프로야구에선 응원팀에 대한 정보를 '모 아' 볼 수 있다. 응원팀에 따른 사용자환경(UI) 설정은 물론 오늘의 경기와 전력 비교, 문자 중계, 주요 영상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프로야구 앱의 핵심 기능인 '생방송 시청'에도 충실 하다. 특히 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 다는 것은 U+프로야구의 가장 큰 매력이다. 여기에 화 면을 '나눠' 5개 경기를 동시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강 점이다. 사용자는 채널을 돌릴 필요 없이 터치만으로



LG유플러스의 'U+프로야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한 화면에 프로야구 5개 경기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동시에 진행되는 다섯 경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돌려'보는 것도 모바일 앱으로 야구를 보는 묘미 중 하나다.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주요 장면을 놓쳤다고 아 쉬워할 필요 없다. U+프로야구에선 '타임머신' 기능을 이용해 최대 2시간까지 뒤로 돌려 볼 수 있다. 무엇보 다 주요 득점 장면을 선택해 넘길 수 있어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다. 이때 우측 하단엔 실시간 중계 화면도 보 여 편리하다. 방금 투수가 던진 공의 투구를 애니메이 션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 또한 생중계 화 면이 함께 보여 경기를 놓칠 일이 없다.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생중계를 보면서 현재 대결 중인 투수와 타자의 3년 간 전적을 동시에 살펴 볼

그밖에도 '허구연의 관전평' 등 U+프로야구만의 즐

길거리도 갖추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00여명의 팬들, 고객들,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다양한 서비스들을 벤치마 킹해 이 앱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야구 중계 본연의 기 능에 충실하면서도 경기시청의 방해 요소를 최대한 줄 이고 궁금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 선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LG유플러스 고객이 아닌 경우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점 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추후 이 앱을 타사 고객에 개방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U+프로야구는 원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 을 수 있으며, 아이폰 이용자는 상반기 내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0/10 인천 0/0 8 강릉 0/10 19 16 19 울산 10/0 8 **20** 광주 10/0 전주 제주 20/10 지역 강수 확률 ₹ 11 20 11 10 최저 살 달뜸 06:23 / 달짐 20:09 🂢 해뜸 05:42 / 해짐 19:18 미세 먼지 바다 날씨 8/20 서울 33 7/18 부산 3/18 경포대 10/19 대구 6/21 \* 9/19 인천 보통 속리산 4/20 6/18 광주 41 보통 \* 42 소백산 6/18 안면도 꽃지 7/17 대전 50 8/21 울산 보통 팔공산 지리산 7/20 거문도 10/20 경기 보통 덕유산 칠포 **\(\foata\)** 11/20 강원 31 보통 내장산 해운대 **‡** 11/21 충북 39 보통 한라산 제주도 **10/16** \*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28일(금) **서울경기 쓴** 9/22 **양동 쓴** 13/24 **청청 쓴** 9/24 **화 🌣** 8/24 **영당 쓴** 12/21 **제주 🌣** 11/23 29일(토) 서울경기 ᄎ 11/24 영동 ᄎ 12/24 청청 卷 9/25 화 ᄎ 8/26 영남 ᄎ 11/22 제주 🔅 13/22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날씨와 생활 27일 (목요일)

4월 27일(목요일) 음력:4월 2일

춘천 0/10



오늘의 마음:가을비, 떠나고 싶다. 운세: 꿈은 크나 현실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두르면 곤란만 야 기 시킨다. 형제나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면 좋겠다.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성급함보다는 안 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 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타인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며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라. 길방:남

오늘은 인덕이 있는 날이다.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변화나 변동 상횡 에서 번민이 따르니 자제와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 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 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기



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확장이나 변화를 원한 다면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항상 자신의 주 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이다.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자신의 뜻을 이 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 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행운색:적색

한다. 혼자서 일처리하지 말라.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보다 긍정적이



닭

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 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나아지겠다. 소극적 으로 행동하라. 길방:북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뜻밖의 좋은 만남이 있겠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 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3,7,8,(5,9)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소, 뱀, 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말,개

# 재운코너





### ■ 인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김혜경

#### ■ 부고

▲신옥순씨 별세, 김요식(선프라자 컨벤션센터 회장) 씨 장모상=25일 오전 9시 충북대병원 발인 27일 12시

### (043)269-7213

▲이춘원(전 농협 전무)씨 별세, 이장성(수원중앙병원 장) · 영성(한국일보 부사장)씨 부친상, 한계수(전 전라 북도 행정부지사)·김형주(전 자산관리공사 차장)씨 장 인상=25일 오전 1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 전 6시 (02)3010-2230

▲이영강씨 별세, 오갑진(삼진제약 이사대우)씨 장모 상=25일 충북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043)210-5444

#### 세정 웰메이드 '굿맨 클래스' 광고 캠페인



세정 '웰메이드'가 2017년 여름 시즌 새 광고 캠페인 '굿맨 클래스'를 공개했다. 3545세대 남성들의 남다른 패션 스타일링 연출을 위한 소매·단추·트래블웨어·쿨비

즈 등 4가지 시리즈 형식으로 구성됐다. 3545세대 남성 들이 공감하는 베스트 스타일링에 '웰메이드' 모델 정 우성의 여유와 당당함이 더해져 패션의 격을 높였다. 특히 영상 곳곳에 정우성의 외모 및 패션에 대한 자신 감이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통해 자연스레 담겨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로레알 '비오템' 새 모델에 AOA 설현 발탁



로레알 '비오템' 새 모델로 걸그룹 AOA 멤버 설현이 발탁됐다. 회사 측은 "바쁜 활동 중에도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건

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설현의 모습이 '비오템'이 추구하는 브랜드 콘셉트와 잘 부합해 모델 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첫 공식 활동으로 '아쿠아수 르스 피레네산맥 수분크림' 광고컷을 공개했는데, 시 원한 물을 배경으로 맑고 생기 가득한 피부를 선보였 다. 특히 밝은 표정과 자신감 있는 포즈가 시선을 사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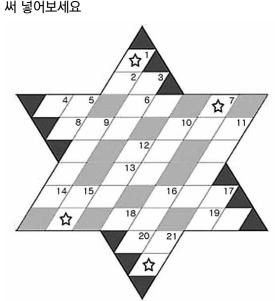
### 네이처리퍼블릭 '3 in 1 팩트' 신제품 출시

네이처리퍼블릭이 '프로방스 인텐스 커버 3 in 1 스트 로빙 파운데이션'을 내놓았다. 파운데이션 · 하이라이터 ·컨실러 제품을 일체형 3단 케이스 하나에 담은 멀티 제품이다. 식물성 보습 성분을 머금은 촉촉한 밤 타입 으로, 휴대성까지 고려해 얇고 심플하게 디자인됐다. 가격은 2만3000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 강주현의 퍼즐월드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 ■ 가로 열쇠

02.동물들의 먹을거리. 04.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 하여 협의함. 06.소·말·양 등의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놓아서 기름. 08. 아내와 함께 동행함.

10.화산의 불을 내뿜는 구멍.

12.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13. 거울을 달아 세운 화장대. 14. 하늘과 바다가 맞닿 아 보이는 선. 16.갓난아이.

18.세상에 비길 데가 없을 만큼 뛰어남.

19.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길.

20.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함

#### ■ 세로 열쇠

01.다섯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

03.다른 나라 사람. 05.서로 마음과 힘을 합함.

07. 번데기가 날개 있는 엄지벌레로 변함. 09.남편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 화합의 도리

10. 공원이나 광장 등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 물을 뿜 어 올리게 마련해 놓은 시설.

11.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겨우 살아남. 12.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고래를 잡는 데 쓰는 배 15.보통의 때나 여느 때. 16.새로운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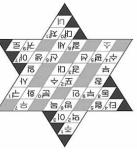
(모바일) WWW. 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 매직스도쿠.kr

17.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과의 사이. 20.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숙한 여자.

#### ■ 퍼즐정답

####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 칸의 글자를 차례로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 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대표전화 02 2020 0114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발행인 송영언 면집부 02 2020 1032 경제부 02 2020 1062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1부 02 2020 1041 분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편집국장 **연제호** 스포츠2부 02 2020 1059 : 사진부 02 2020 1069 광고국장 **이승욱**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인쇄 **동아일보사**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